해외 고승 지상법석

여름 특집

마음에 감옥을 만듭니다"

"자유와 부자유는 오직 생각에 달려있어 마음이 능히 경계를 바꿀 수 있으면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는 비밀이 없다' 경지에들면 걸림없는 인생

탐애·애증등 번뇌 항복 받을때 행복의 문 열려

"폐하! 더 간다해도 망망대해일 뿐입니다"

알렉산더는 부하의 말을 듣자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세계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할 방법이 없구나! 내겐 우주를 정복할 방법도 없지만, 내 자신의 야심을 정복할 방법은 더욱더 없구나!"

몸시 상심한 알렉산더대왕은 대를 되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개인의 야심이 너무 크고 욕망의 불길이 지나치게 뜨거우면 종종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수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고 이러한 비밀들은 때때로 우리를 편안하지 못하게 옭아매곤 합니다. 마음 속의 번뇌를 항복받고 마음을 편케 하는 도(道)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문입니다.

2조 혜가(慧可)선사가 달마(達磨)조사를 찾아갔던 것도 조사스님에게 이처럼 편안하게 하기 힘든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을 편하기가 어려운 것은 마음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은밀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 은밀하다는 말은 바로 비밀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이들 비밀은 자신의 내심 깊은 곳에 머물면서 마치 누에고치처럼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남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 우리들 중 누군가가 '책이라면 내가 아직 읽지 않은 것이 있지만, 비밀은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경지에 도달했다면 그는 아주 자유롭고 아무 걸림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밀이 없는 인생은 부담이 없는 해탈한 인생 바로 그 자체 입니다.

감옥에 갇혀 육체적 자유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무한한 연민과 동정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 또한 날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남의 돈 이백원(한화로 오천원 가량)을 훔쳤는데, 이십년이 지나도록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누를 수 없었기에 어느날 용기를 내어 돈을 돌려주기 위해 돈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십년 전에 제가 당신의 돈 이백원을 훔쳤습니다. 오늘 이자를 보태서 이만원을 드리겠으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주인은 이 말을 듣자 영문을 몰랐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돈을 훔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당신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 훔쳤습니다"

"아!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또 오래전 일인데 뭘 그러십니까. 돈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주인은 완곡하게 사양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돈을 받아주시길 간청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초조해져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한사코 돈을 받지 않겠다 하고 또 한 사람은 기어이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한참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돈을 돌려주겠다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십년전에 제가 잠시 어리석었던 탓에 제 평생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십년동안 전 양심의 가책으로 부끄럽고 불안하여 잠시도 마음의 고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감옥에 갇힌지 이미 이십년이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야만 저는 마음 속의 감옥에서 풀려나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절도범처럼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사사로운 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은채 부자유스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부자유스럽지만 마음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 유유자적하며 또한 내면의 세계를 깊이 응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유로운 인생을 삽니다. 자유와 부자유는 오직 자신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경계를 따라 바뀌면 부자유요, 마음이 능히 경계를 바꿀 수 있으면 대자유를 얻는 것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종(禪宗)의 3조(三祖) 승찬(僧璨)대사의 어록인 신심명(信心銘)에는 이를 잘 말해주는 귀절이 있습니다.

마음속 쓸데없는 일이 없다면 그 때가 인간의 호시절이라

'지극한 도(道)는 어렵지 않음이여, 다만 간택(揀擇)을 버려라. 다만 애증을 짓지 않으면 뚜렷이 밝아지니라(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지고무상(至高無上)한 오묘한 도를 구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우리의 우주만물에 대해 간택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지극한 도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게할 뿐이니 마음속의 탐애와 애증 등 갖가지 번뇌를 제거하여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일체를 비추면 진리의 오묘한 도가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늘 한탄하며 말합니다. '호랑이의 거죽을 그리기는 쉬우나 뼈를 그리기가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기 쉽지만 마음은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자신의 마음에 대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순식간에 바뀌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우유부단한 마음을 안정시킬수 있을까요? 무문(無門)스님께서 시 한 수를 읊으셨으니,

'봄에는 온갖 꽃이 있고, 가을에는 달이 있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고, 겨울에는 눈이 있네. 만약 마음속에 쓸데없는 일이 없다면 그 때가 우리 인간의 호시절이라'(春有百花秋有月, 夏有凉風冬有雪, 若無閑事掛心頭, 便是人間好時節)

시절상으로 춘하추동이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바삐 뛰어다니며 살고 있지만 일체의 인연을 놓아버려서 마음 속에 한 물건도 없다면 자유롭고 흡가분한 경계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32

양 형 진

하나의 세계 I

양자 역학에서 다루는 물체는 파동이면서 입자이고 입자이면서 파동이며, 역으로 말하면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라는 논의를 하였었다. 이는 우리의 지각 경험에 근원을 두는 언어 개념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또한 승의제와 세속제와 연관시켜 최상승의 절대 진리는 언설로 다 다룰 수 없는 경계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있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질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양자 역학에서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말하지만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간에 놓여 있는 물체는 파동적인 성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양자 역학은 비결정론적인 확률 분포를 말하지만, 어제 사용했던 책상은 하루 밤을 지내고 난 지금도 내 앞에 어제와 정확히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일상 생활에 확률분포란 개념은 적용될 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의 개념들은 우리의 삶의 공간과 전혀 연관 없는 것이며, 이에 기초한 논의들도 또한 허황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다.

불교의 공에 대해서도 이와 평행한 질문이 가능하다. "내눈앞에 분명히 책상이 놓여있다. 그 위에 책을 놓을 수 있고 만지면 만져지는 물건이 분명히 있는 데 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는가? 나는 모든 감각 기관을 다 가지고 있는 데 왜 반야심경에서는 무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가? 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이다.

뉴턴 역학은 거시 세계에 관한 물리학으로서 천체의 운동을 비롯하여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과거의 많은 사람들은 뉴턴에 의해서 물리학은 완성된 것으로 보았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의 관측 영역이 확장되면서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양자역학이나 상대론이다.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양자역학은 크기가 작은 물체, 즉 미시 세계에 대하여 뉴턴 역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한다.

뉴턴 역학이 천체라든가 돌멩이 등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반면에 양자역학은 전자나 광자 등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시세계를 기술한다. 또한 상대론은 물체의 속도가 아주 빠른 경우나 아니면 중력의 영향이 아주 큰 영역의 물체에 대하여 뉴턴 역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루는 것을 특수 상대성이론이라고 하며, 중력까지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경우를 다루는 것을 일반상대성 이론이라고 한다.

이처럼 상대론이나 양자역학 등과 같은 현대 물리학의 이론들은 우리의 감각 경험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을 다루고 있다. 공의 세계는 우리의 감각 경험으로 구성할 수 없는 세계이며,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이다. 양자역학이 다루는 전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전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과학자도 또한 없다.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이 미치지 못하며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여서 절대 진리의 세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

현대물리학 뉴턴역학포함 空세계 다뤄

색즉시공 처럼 미시·거시도 하나로 존재

현대 물리학의 이론들은 우리의 감각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기술하는 데에 주로 쓰이지만 우리의 일상 영역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물리학은 고전 물리학을 포함한다. 고전물리학은 현대물리학의 근사이론이며, 이는 현대물리학의 어떤 극한으로 표현된다. 이 근사 이론은 세계의 일부 즉 거시 세계만을 기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시 세계를 기술하는 양자역학이 따로 있고 거시 세계를 기술하는 뉴턴 역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세계가 미시세계와 거시 세계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며, 이 세계를 기술하는 것이 현대물리학이다.

공의 세계는 우리의 감각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이다. 그 공의 세계는 색의 세계를 포함한다. 색의 세계 즉 현상계는 공의 세계의 근사이며 한 극한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의 세계가 따로 있고 색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는 공의 세계와 색의 세계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공의 세계만이 존재한다. 현상계는 공의 세계의 극한으로써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2분도현미 (먹기 어렵다)
3분도현미 (먹기 쉽다)
4분도현미 (먹기 더쉽다)
5분도현미 (먹기 더욱 쉽다)
6분도현미 (먹기 더더욱 쉽다)
백미10분도 (밥눈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배달"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82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 468-8329
■호출기: 012-307-8329
박 석 언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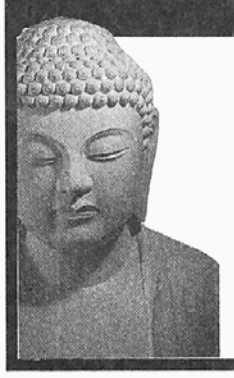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정통 중국어 속성강좌
냉·난방, 최고급 시설과 어학실습실 완비
중국 사범대학 교수 초청강의 최임지도
기초반, 회화반, 유학반, 비지니스반
■스님 유학반 모집(이미 출국유학중)
■학위및 자격취득 책임보장
■JW 202 유학허가및 입학통지서 보장
■HSK 시험대비 중점 강의
中國語 : 漢文 : 書法
평일 6:30~22:00(9월 학기 유학생 모집)
특별반 토➡14:00~18:00 일➡10:00~18:00
정기 학원생 취업보장(수시접수)
상담: 代 (02) 246-8256, 246-8257
韓中語學院
원장: 중국 할빈 사범대학교 경제학 교수
중국 학위 심사위원(한국인 최초)
관허 1670호 기업진출상담

經歷幹部招聘
귀하의 고귀한 경력을 모십니다.
당 그룹 계열사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종합상사로써 창설 5주년을 맞아 서울 및 수도권 거주 佛者님 약간명 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응 시 자 격
경영관리	① 40~60 才限
지점관리	응募 ② 자영업 경영자 및 임원
기술영업	심사 ③ 軍·公職 퇴직자
	④ 佛敎系 관련종사자
영업관리	① 30~39 才限·大卒
전산운영	② 전산직은 20~23 才女사원

2. 전형방법: 1차 면접후 결정
3. 접수기간: 95년 7월 10일 ~ 7월 17일(월)
4. 근 무 처: 종로구 관훈동 관훈B/D 7층전관
상담문의: 737-0588~9

윤 조각실(불교미술원)

■부처님 조성
■청동불 조성
■대불조성
■천불전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시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 光 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아봐타코스 수련생 모집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는 곳
7월 15일 ~ 7월 23일 9일간 / 신청접수:선착순 10명에 한함
깨달음·견성·해탈·영적완성 등 당신의 의문을 아봐타코스는 명확히 경험하게 합니다.
慧元 아봐타코스 전화 579-9379 팩스 572-5514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中·高·大과정(36개월)
■특전: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9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이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원(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